

News

‘역머니무브’ 현상에 긴장하는 은행…조달비용 상승 커진다

이코노미스트

국내 은행 수신 규모 4월 기준 6조 6,000억원 증가… 올해는 주식 시장 하락세에 은행에 다시 자금 유입…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수신금리 상승으로 향후 자금이동 계속될 것
업계에서는 조달비용 부담 가속화…추가 대출 변동금리 높여 NIM 하락 방어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 충당금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 제기

토스뱅크, 고객 330만 돌파…1분기 순손실 654억

한국경제

토스뱅크, 올 1분기 순이자이익 -29억원… 총 여신잔액 2조 5,900억원, 총 수신잔액 21조원… 대손충당금 234억원 적립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5월말기준 35.2% 달성… NPL 0.04%… 가입고객 수 33만명 돌파… 토스뱅크통장개설 고객은 300만 3,600명

신한 주담대 최대 5년 더 연장해준다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 주담대 이용고객 대출 기간 최대 5년 연장… 기존 주담대 고객도 대출기간을 최장 40년으로 연장 가능… 금융소비자 원리금 부담 완화
기준금리 조건 그대로 대출 기간 확대 가능… 6월 중 SOL에도 주담대 대출기간 확대 프로세스 신설할 예정

인뱅, 관료 출신 영입전… 카뱅 이어 토뱅크 사외이사 기용

디지털타임스

토스뱅크, 지난달 26일 박진희 전 한국씨티은행장 후임 사외이사로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선임… 재무관료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
카카오뱅크는 지난 3월 금감원장 역임한 진웅섭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사외이사로 선임…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재무관료 출신 잇단 진임

보험사기 적발액, 5년간 4조 넘어, 환수율 10%대… “보험료 인상 초래”

동아일보

17년부터 작년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 1,707명, 적발액은 4조 2,513억원으로 집계… 매년 증가하는 추세
다만 보험사기 적발액에 대한 환수 실적은 10%대로 매우 저조… 손보사들 15.2%, 생보사들 17%…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초래 가능성

백내장 수술비 못 줘…'의료자문' 남양 보험사에 칼 뚫다

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 11개 보험사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 담당 임원간담회' 진행… 사실상 당국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창구지도
의료자문 남용으로 선의의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보험업계의 자구노력 당부하기 위한 목적… 업계는 4월들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청구 건이 몰렸기 때문으로 설명

두나무 "사업 다각화"… 강남 오피스 매입 추진

파이낸셜뉴스

두나무, 부동산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사업다각화…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 확보하기 위한 차원
코람코자산신탁이 설정하는 리츠에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 검토 중…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사업 다각화에 속도낼 예정

IPO 경쟁력 강화한 KB증권, 냉랭해진 업황에 ‘비상등’

CEO스코어데일리

KB증권, 국내 증권사 중 IPO 주관 1위 차지할 것으로 예상… LG에너지 솔루션, LG CNS 대표주관 자리 따내…
다만 얼어붙은 IPO 시장 분위기 감안시 실적 개선폭이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도 존재… 하반기 남은 IPO 성사에 최선다할 것으로 사측은 설명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할 수 없습니다.